

12명 수공예 작가 작품 '한자리에'

기린미술관, 16~23일 제6회 수작부리다전 개최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이 16일부터 23일까지 수공예자 12명이 참여하는 '수작부리다 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 맞이한 이번 기획전에는 '손으로 만든 빼어난 작품을 전시한다'는 마음으로 각계의 수공예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참여 작가(분야)는 강미(재생아트), 김영숙(토탈공예), 김창수(서예), 박은희(광목자수), 신수경(도예), 유서영(천아트), 이희성(전통매듭), 장복남(연인형 공예), 장정아(프리저브드플라워), 전효권(목공예), 최송산(한국화), 태원애(한지공예)이다.

작가마다 하루루 만든 흔적 없이 하나같이 섬세하고 정성 가득한 손길이 묻어 있어 한 자리에서 다양한 공예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수작부리다의 장점이다.

'수작부리다'는 전주·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수공예 작가들이 모여 수공예 활성화에 위해 창립한 단체(고유번호 382-80-02708)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문화적 소양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결성됐다.

이들은 전주뿐 아니라 타지역의 특색 있는 수공예 작가도 초청, 다양한 분야의 공예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작년 실용미술부문 명장(솔피 최송산)의 뒤를 이어 전효권, 장정아, 이희성 3명이 2023년 11월 사단법인 한국서화교육협회로부터 각 분야의 명장(名匠)패를 받아 전체 9명의 정회원 중 4명의 명장이 활동하는 단체로 회원들의 작품 위상을 드 높이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제6회 수작부리다전 포스터



전주대학교 박물관 옥창민 학예연구사가 도시시상을 수상했다.



전주대학교 박물관 국민희 학예연구사가 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전주대 박물관 성장 보탬 될 것”

옥창민·국민희 학예연구사, 각각 도시시상·협의회장상 수상

전주대학교 박물관 옥창민·국민희 학예연구사가 각각 도시시상과 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자랑스러운 박물관·미술관인상은 지난 2017년부터 전북도에 있는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학예연구사에게 수여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시상을 받은 옥창민 학예연구사는 2018년부터 본교에 재직하면서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고분군 정밀발굴조사', '부안 진서리 요지' 등의 문화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에 이바지했다. 특히 올해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교육프로

그램으로 2,500여 명의 학생들이 전주대학교 박물관을 다녀 갔다.

이어 협의회장상을 받은 국민희 학예연구사는 2016년부터 재직하면서 '평생교육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찾아가는 박물관'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으로 일반시민과 학생들이 박물관을 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노력했다.

도시시상 및 협의회장상을 수상한 두 연구사는 "전주대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시, 교육, 학술연구를 통해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성장해 가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대형트리·버스킹 문화공간 등 마련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교육가족 및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직원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지역주민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제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직원수련원을 이용하는 교직원이 함께 동반한 가족, 연인 등과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내부에 대형트리와 다양한 소품을 비치하고, 실외 야외정원에 LED 조명 설치와 사슴가족 조형물 정비로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누구나 직접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피아노와 기타를 비치해 버스킹을 할 수 있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교육가족 및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했다.

는 문화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오는 23일 오후 7시에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문밴드를 초청해 이문곡 및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김제 금구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우수도서관' 선정

한국도서관협회장상 수상

김제시는 12일 부산 원담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2023년 '길 위의 인문학' 우수도서관 시상식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한국도서관 협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최한 이날 시상식은 2023년 '길 위의 인문학' 참여 도서관 319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사업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개소, 한국도서관협회장상 9개소를 선정했으며 그 중 금구도서관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금구도서관은 지난 3월, 2023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돼 8월부터 11월까지 강연, 탐방, 토론의 형식으로 11회에 걸쳐 '호남평야의 중심-김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뿌리를 찾다'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제를 배경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흔적과 발자취를 찾고 이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시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긍심을 제고하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를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받는 상이기에 더 뿌듯하고, 이번 수상은 인문학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 문화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코레일관광개발, 업무협약 체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지난 11일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권신일) 본사 회의실에서 남원일대 관광지와 국악공연을 연계한 철도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두 기관은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내용 공유 및 상호홍보, 남원일원 및 국악공연 연계 철도관광상품 개발과 운영, 교류 등에 대해 협

력을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립민속국악원은 남원을 찾는 기차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확대할 계획으로 국악공연이 관광상품화에 기여하고, 남원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창립 제48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

신·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18:00 **장소 | 순창장애인체육관**

모시는 글

회장단 및 감사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하나되어 미래로 더 높이 도약하는 순창청년회의소에 평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순창청년회의소 창립 제48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과 아울러 **신·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창청년회의소 회장 **이시열**
2024년 회장 **이진선**

이임회장
이시열

취임회장
이진선

상임부회장
신희성

내무부회장
오유준

외무부회장
김우재

감사
황영하

감사
김도민

전역회원
선택수
서연수